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성령강림절 후 제13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1(통46).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검은 구름을 물리치시고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을 허락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의 먹구름을 걷어가 주십시오. 가을하늘처럼 맑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뜻을 높은 곳에 두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반복되는 일상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늘 깨어있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로호를 통해 일이 순서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지 잘 보았습니다. 이 사회의 문제들 또한 하나님의 순서와 질서를 벗어났기에 일어나는 일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 사회의 분위기를 바르게 잡아주십시오. 탐욕의 열기로 메말랐던 공법과 정의의 강이 다시 시원스레 흐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마5:3,4
♠ 교 독 문	10. 시편16편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대표기도	I. 박경선 집사 II.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391(통446). 오 놀라운 구세주
성경봉독	I. 합3:17-19
	II. 창18:1-8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자신을 가볍게 던져라
	II.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라
거둠기도	다함께

- 찬 송 552(통358). 아침 해가 뜰 때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웃을 대접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길입니다.

다 함 께 : 아멘. 자기의 앞가림에만 급급해 이웃의 필요에 대해 무감각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나의 편함과 만족보다는 상대방의 기쁨과 평안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린다는 생각으로 이웃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앙강좌	9월 기도의 밤
가난에 대한 오해와 이해 / 김경연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한성건 선생 한완식 장로	임해나 학생 박범희 집사

8월	영접위원	한상익 박범희 배근수 강순배 박미영 김금순
	헌금위원	조병무 장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광화문의 동상 속에는 충무공이 없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한산섬에 가 있으리라는 당신의 말을 따라 오늘은 충무공을 찾아서 이곳 한산섬에 왔습니다. 당신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있는 충무공 동상 속에는 이순신 장군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밤중에 ‘구리 이순신’이 그 무거운 입을 열어 지나가는 옛장수에게 구리 갑옷을 벗겨달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부릅뜬 눈으로 큰 칼 짚고 서서 경복궁과 청와대를 지키는 일을 이제 그만두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한다고 하였습니다. (……) 나는 당신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과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이곳에 있었습니다. 구리 갑옷을 벗고 시원한 바닷바람에 머리카락 날리며 백의종군의 옷차림으로 푸른 물에 얼굴을 씻고 있었습니다. (……)여기야말로 충무공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산섬은 1593년 본영(本營)을 여수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후 1597년 충무공이 서울로 압송될 때까지 4년간을 지키고 있었던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만나는 충무공의 첫 번째 모습은 옥포해전의 승리를 시작으로 당포·한산도·부산해전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대첩(大捷)을 휘몰아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로 우뚝하게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일본군의 예봉을 꺾어 간감을 서늘하게 한 위풍당당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 다시 반격해올지 모르는 팽팽한 대치상황 속에서 나라의 존망을 한 몸에 지고 일본군의 움직이는 순간을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제해협과 진도해협을 거쳐 서해와 한강으로 이어지는 일본군의 해상진격로와 보급로를 봉쇄하고 충청·전라의 양호(兩湖)백성들과 곡창(穀倉)을 지켜야 하는 전략지점에 서서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의 모습은 조정을 기만하고 임금을 무시한 죄, 적을 토벌하지 않고 나라를 저버린 죄로 압송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모함과 당쟁의 희생이 되어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하는 비통한 모습입니다.

네 번째의 모습은 옥에서 풀려나와 통곡하는 모습입니다. 패전의 비보를 듣고 피란민의 행렬 속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이룩해

놓은 함대는 형적도 없이 파괴되고 군량·화약·총통(銃筒)할 것 없이 퍼
뺨으로 쌓아놓은 군비는 한 줌의 재로 불타버리고 백성들마저 적들의 어육
이 되어 짓밟히고 있는 참담한 패보(敗報)를 접하고 통곡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은 병선 12척을 이끌고 100여 척이 넘는 일본함대를 향
하여 돌진하는 비장한 모습과 일본함대를 격퇴하고 승리를 눈앞에 둔 환희
의 순간에 조용히 눈감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

그러나 오늘 정작 이곳 한산섬 앞바다에 와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의 이러저러한 모습은 언제나 수많은 백성들 속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입
니다. 불바다에서 호령하고 있을 때에도, 팽팽한 긴장 속에서 적과 대치하
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옥에서 풀려나와 폐허가 된 군진으로 돌아올 때마
저도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함선을 만들고 수리
하는 사람, 활을 만들고 화약을 만드는 사람, 적의 움직임을 알려오는 사
람, 바닷물길을 가르쳐주는 사람, 둔전을 일으키고 고기를 잡고 소금을 구
워 군량을 마련하는 사람……. 그는 언제나 사람들로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달 밝은 밤 홀로 앉아 있는 동안에도 그는 전화(戰禍)에 떨고 있는 수많은
생령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몇몇 권세가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의 모습
이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난중일기(亂中日記)』에는 군관·병사
그리고 마을의 고로(古老)와 노복(奴僕)들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그들의 이
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운집(雲集)속에 서 있는 충무공의 모습
이야말로 그의 참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탁월한 전략도 바로 이러
한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연전연승 불패의 신화도 바로 이러한 사
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군량도 병력도 이 풍부한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무거운 구리옷 벗어버리고 바람에 옷자락 날리며 바다처럼 풍부한 사람들
의 한복판에 서 있는 충무공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당신의 글을 다시
읽습니다.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서 있는 우상(偶像)은 사람들을 격려하기보
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본질에 있
어서 억압(抑壓)이다.” 천재와 위인(偉人)을 부정하는 당신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 가장 강한 사람이란 가장 많은 사람의 힘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며, 가장 현명한 사람이란 가장 많은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
이기 때문입니다. (……)

매 듚

택배로 온 상자의 매듭이 풀리지 않는다
 어머니의 방식으로 단단히 묶인 끈 / 보다 못한 아이가 칼을 건넨다

늘 지름길을 지향하는 칼 / 좌석표가 있다는데도 일부러 입석표를 끊어
 두 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서서 가시며
 그 근소한 차액을 챙기시던 / 어머니는 평생 지름길을 모르는 분이였다

상자 속엔 가을걷이하신 곡식과 채소가 들어있을 것이다
 꺾꺾 눌러도 넘치기만 할 뿐 말끔히 닫히지 않는 상자를
 가로 세로 수십 번 이 비닐 끈으로 동여매셨을
 어머니의 몽툰한 손마디가 떠올라 / 칼을 가만히 내려놓는다

힘이 들수록 오래 기도하시던 어머니처럼
 무릎을 꿇고 / 밤이 이슬해지도록 상자의 매듭과 대결을 한다
 이는 어찌면 굵어진 어머니의 길로 들어가
 아득히 가시는 어머니를 따라가는 일인지도 모른다

어린 날에는 이해되지 않던 험한 길 굵이마다
 붉게 저녁노을로 걸린 어머니의 생애

옹이진 매듭 같던 어머니의 암호는 / 난해하지 않았다
 차근차근 풀어내고 보니
 이음새도 없이 어머니의 끈은 길고 부드러웠지만 하다 - 장흥진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윤수 박상호 박규석 박경선 박지인 손성현 임승동 백혜숙 전월수
박효선 문명종 김혜영 장원호 박성희 무 명

월정헌금:

김순자 박준희 이기분 윤주원 최윤선 이유선 방극숙 이은자 배부례
문희창 황의일

감사헌금:

방문성 박혜경 박홍재 김은정 김중수 이순정 권혁신 임해나 김윤숙
송희원 무 명

녹색꿈 헌금:

임고운 백묘현 오현정 장영숙 이영순 무 명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 해 숙	박 성 실	심	연 합 속 회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임 정 자		
가 나 안	문 영 혜	이 명 희		
갈 릴 리	안 정 숙	진 정 숙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가버나움	안 흥 숙	오 현 정		
나 사 렛	정 영 선	백 혜 숙		
갈라디아	유 경 순	김 명 희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영 란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신앙강좌** : 오늘 오후집회는 신앙강좌로 모입니다. 강사는 월드비전 옹호팀의 김경연 팀장입니다. 주제는 '가난에 대한 오해와 이해'입니다.
2. **기도의 밤** : 이번 주 수요집회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3. **연합속회** : 9월 연합속회가 4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열립니다.
인도: 시온 속 식사봉사 : 갈릴리 속
4. **성서학당** : 가을학기 성서학당이 다음 주 10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강합니다.
5. **신앙다지기** : 9월 12일(토) 오후 4시 30분부터 신앙다지기 5기를 시작합니다. 하반기 마지막 교육입니다.
6. **사과** : 사과분양 신청하셨던 분들은 오늘 생협에서 사과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7. **주차** : 가급적이면 교회 마당에 차를 세우는 일을 자제해주시요. (장애인 차량은 예외)
8. **신앙실천** :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은 우리교회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 식당 봉사 : 가나안 속 (다음 주 : 갈릴리 속)

* 설거지 봉사 : 한상의 이준하 (다음 주 : 곽상준 최경미)

새교우 소개

최재욱 (4남선교회)

이수정 (7여선교회)

최창식 (시므온선교회)

조예순 (1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